

中國의 博物館 - 形成과 發展을 中心으로

오 일 환*

목 차

- | | |
|--------------------|----------------------------|
| 머리말 | 1) 전통 중국의 박물관 |
| 1. 중국의 박물관과 문화재 | 2) 신해혁명(1911) 이후의 중국 박물관 |
| 2. 중국 박물관의 유형과 발전 | 3) 신중국 성립(1949) 이후의 중국 박물관 |
| (1) 중국 박물관의 유형과 관리 | 3. 개혁개방(1978) 이후의 중국 박물관 |
| (2) 중국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 맺음말 |

머 리 말

중국의 문화재나 박물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최근들어 중국의 문물보호법이나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¹⁾ 이는 한반도의 분단 이후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가 단절의 시대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수교 이후 급속한 학술 교류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학문 연구 성과나 동향 등을 국내에서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 자료의 구득 혹은 관련 학술정보 자료 등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장애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 상황으로 볼 때 필자가 목차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 중국의 문화재와 박물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살펴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필자의 초보적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한중간의 박물관 또는 고고 문물학적 성과등에 대해 더욱 활발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²⁾

* 경희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1) 최무장, 1998. 「중국의 문화재 관리」 『고문화』(서울:한국대학박물관협회)51, 193-209. 이 글은 중국의 『문물보호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문물보호단위, 지상 유물관리, 지하 유물관리, 기타 문물의 관리, 문물보호기구의 임무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성시자치구 박물관 작업 조례」의 조문을 해석해 놓았다.(이 글은 본래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0회 학술발표회(1997.10)의 요지문이기도 하며 「중국의 문화재 정책」 『미술사학』(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3,1989. 68-81쪽에도 있다-편집자 주) ; 何戊中, 장범성 역, 1997. 「중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 『아시아문화』(춘천: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13, 299-316. 이 글은 중국 문화재의 분포와 특징, 보호와 관리 현황, 보호와 관리의 문제점과 전망 등으로 구성하여 중국의 문화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현황과 미래를 살펴 보고 있다.

1. 중국의 박물관과 문화재

중국에서 박물관이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박물관’이란 단어는 『左傳』「昭公元年」에 보면 晉侯聞子產之曰博物君子라는 것이 있고 『漢書』「劉向傳贊」에는 皆博物洽聞 通達古今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박물관이 ‘박식하고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에 사용되는 박물관의 의미와는 매우 거리감이 있다.³⁾

1850년대에 중국의 청정부는 세계 각국의 역사나 강역 그리고 정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와 지식인들을 해외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귀국 후 저술한 기록은 50여종이 넘는다. 이 중에 『乘槎筆記』에는 15곳, 『航海述記』에는 20곳의 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는데 集寶樓, 集奇館, 集骨樓, 行館, 公所, 畫閣, 軍機樓 등으로 기록하였다.⁴⁾ 이처럼 진귀한 물건을 수장하는 곳으로 臺, 閣, 殿, 堂 등이 사용되었으나 1867년 王韜가 서양을 유람한 후 저술한 『漫遊隨錄』에는 Museum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의 뜻인 博物院으로 번역 소개한 이후부터 점차 현재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⁵⁾ 신중국 성립 후 문물과 박물관에 대한 문물 보호조항이나 박물관에 관련된 법률, 조례,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⁶⁾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인민과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기관으로 박물관을 포함하고 있다. 제22조에 국가는 ‘문학예술, 신문 방송 텔레비전, 출판발행, 도서관, 박물관, 문화

2) 본 글은 제4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원회 학술대회(1998.4.16-18, 안동대학)에서 발표된 「中國의 박물관과 박물관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의 발표문 「중국박물관」부분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중국의 박물관학」은 지면 관계상 추후 보완하여 『博物館學研究』(대전: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3에 게재될 예정이다.)

3) 『說文解字』에는 ‘博,大通也’라 했으며 『荀子』, 「修身」에는 ‘多聞曰博, 少聞曰淺’이라 했다. 『辭源』(合訂本), (商務印書館, 1993), 232; 『漢語大字典』(縮印本), (四川辭書出版社, 1993), 28.

4) 王宏鈞 主編, 1990. 「中國近代博物館的產生」, 『中國博物館學基礎』(上海古籍出版社)75-78.

5) 馬繼賢, 1994. 「近代博物館產生的思想與論準備」, 『博物館學通論』(四川大學出版社) 29. ; 中國博物館學會編, 1993. 『中國博物館學會成立十周年紀念暨學術討論會文集』(이하 『討論會文集』으로 약칭함) (北京:紫禁城出版社)에 收錄된 呂濟民, 「中國博物館事業一百年」, 1-12. ; 傅振倫, 「近百年博物館事業先驅的事迹」, 13-23.

6) 何戊中, 1997. 「앞글」(주1)303-304. 중국은 1982년 11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문화재의 범위, 고고학 발굴, 부동문화재의 보호, 박물관의 건설, 개인 소장 문화재, 문화재의 해외 반출, 표창 및 처벌 등 각 방면의 문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1991년 각종 문화재 관련 범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률안을 수정하였다. 중국의 주요 문화재 보호법에는 「水下文物保護管理條例」(1989), 「고고섬의공작관리辦法」(1990), 「문물보호법실시세칙」(1992) 등이 있다. 27개 省에서는 지방문화재 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각 지역의 특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조약으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공약」, 「문화재의 불법 반출 소유권의 불법 이양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방법에 관련된 공약」,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도난 및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공약」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가입할 예정이라 한다.

관과 기타 문화사업의 활동과 명승고적, 진귀 문물과 기타 중요 역사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박물관을 국가가 주관하는 지방의 종합성 혹은 전문성 박물관으로 나누고 '문물과 표본의 주요 수장기구, 선전 교육기구, 과학을 연구하는 기구이며 중국 사회주의 과학 문화사업의 중요한 조성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박물관 공작은 당연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 工農兵과 사회주의를 위한 복무를 堅持하며 古爲 今用の 방침과 각 항의 문물공작 정책을 관철시켜 선명한 민족 풍격과 지방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박물관을 만든다(제2조). 제3조에는 박물관은 '문물을 수장, 표본을 수집, 과학적 연구, 진열과 열람을 통하여 역사와 과학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군중에 대해 애국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전 민족의 과학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공헌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⁷⁾ 이처럼 중국에서의 박물관은 '문물의 표본을 수집하고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및 자연표본을 保藏하는 연구와 진열을 통하여 문화 과학 소식을 전파하는 사회 복무를 위한 문화교육 사업기구'로 정의하고 있다.⁸⁾ 다시 말하면 진열과 연구 그리고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실물 및 자연 표본을 보장하는 일종의 문화 교육 사업 기구라는 것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박물관을 '연구(study)와 교육(education), 향수(enjoyment)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acquires), 보존(conserves), 연구(researches), 전달(communicates), 전시(exhibits)하며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제4410호에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박물관을 정의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박물관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7) 國家文物局, 『省市自治區博物館工作條例』총칙(1979.6.). 중국 강소성 박물관학회는 '박물관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사회주의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복무한다. 교육과 고상한 정취가 있는 오락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문물 표본을 기본으로 하여 수장, 연구, 진열, 전파를 기본임무로 하는 과학연구와 사회 교육기구'라 하고 있다. 중국은 1983년에 국제박물관협의회에 가입하였다.

8) 王宏鈞 主編, 1990. 『博物館的定義』『앞책』(주4)28-29.

9) 문화체육부, 1994.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정집』(서울:문화체육부)9-10.

10)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博物館學研究』(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창간호, 11-26.에서는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enjoyment)을 위해서, 인간(people)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communicates), 전시한다'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미래의 박물관을 위한 제언 등으로 나누어 박물관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 하였다.¹¹⁾

중국의 「文物保護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진 문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문물의 범주는 1)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문화 유적지, 고분묘, 고건축, 석굴사원과 석각 2)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혁명운동 혹은 저명 인물이 관련되어 있으며 중요한 기념적 의의나 교육적 의의 그리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유적지, 기념물 등 3) 역사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 4) 중요한 혁명운동 관련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나 고도서 자료 5) 역사상 각 시대와 각 민족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물 등과 이외에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척추 동물 화석과 고인류 화석 등도 문물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¹²⁾ 박물관의 문물 소장품은 반드시 등급을 구분하고 당안을 비치하여 관리하며 유출을 엄금하도록 규제하고 있다.¹³⁾

중국에서 문화재는 크게 不動文物(이동 불가능한 문화재)과 可動文物(이동 가능한 문화재)로 나뉘고 있다. 부동문물은 크게 고건축 및 역사적 기념 건축물, 석굴사, 석각, 유적지, 고분, 근현대의 유적지 및 기념 건축물 등 6개 형태로 나뉜다. 특히 고건축 및 역사적 기념 건축물이 8만 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⁴⁾ 가동문물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

11) 문화체육부, 1994. 『한국의 박물관』(서울:문화체육부)142.

12) 『中國大百科全書-文物, 博物館』(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이하 『全書』라고 약칭함)의 「文物概論」(585-586)과 「文物保護單位管理」(587-588)를 참조.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은 1982년 11월 19일 제5회 全人大常委會 제25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총8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1조~6조), 제2장은 문물보호단위(7조~15조), 제3장은 고고발굴(16조~21조), 제4장은 館藏문물(22조~23조), 제5장은 개인수장문물(24조~26조), 제6장은 문물出境(27조~28조), 제7장은 장려와 징벌(29조~31조), 제8장은 부칙(32조~3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앞책』, 796-797.) 이 법의 제정으로 「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1961)는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형법」제173조, 제174조, 「민법」제75조, 「행정소송법」(1989)등 각종 법에 분산되어 있다.

13) 문화재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문물보호법」에서는 문화재 감정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성정부, 현정부에서는 자기 행정 관할 구역내의 문화재를 감정하고 등급을 정하여 공포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는 국가박물관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공포한 후 관리한다. 문화재는 '전국중점 문물보호단위', '성급 문물보호단위', '현급 문물보호단위'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들 문화재는 다시 진귀 문화재(1급,2급,3급)와 일반 문화재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14) 何戊中, 1997. 「앞글」(주1)300-301. 고건축물 및 역사적 기념 건축물은 기능에 따라 5개로 분류된다. 1)제왕과 각급 통치자들의 궁전, 陵寢, 성벽, 苑囿, 제사단, 王府, 관아 2)민간 건축물인 개인 園林과 주택 및 祠堂, 회관, 누각, 서원, 戲臺 등 공공 건축물 3)생산 및 과학 기술에 관련된 고대 건축물 4)종교 건축물로 불교 사찰과 불탑, 회교의 清真寺, 도교의 宮觀 5)기념건축물 등이다. 석굴사는 분포 지구와 건조시기에 따라 신강지구, 신강 동쪽의 중원 북부지구, 남방지구, 서장인 티베트 지구로 나뉜다. 유적지는 민간 거주지, 궁전, 관아, 사찰, 사당이나 마을, 성 등의 각종 건축물과 洞穴, 채석장, 하수도, 창고, 광산굴 등이다. 유적지에는 인류화석의 발견지와 구석기 유적지가 200여 군데 있고 신석기 취락 유적지의 거주지와 매장지가 1만여 군데 있다. 그리고 하상주시기의 도읍지, 진한 및 이

일반적으로 器物, 문헌, 서화로 나뉘며 대다수의 박물관에서는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¹⁵⁾

이들 문화재는 박물관 기능을 가진 각종 유형의 紀念物이나 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가 박물관과 각 성정부의 박물관, 문화청 소속의 박물관과 각 현급 정부 산하에 문화 박물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요 부동문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 1,800여 곳에 문화재 관리소를 설치하고 있다. 가동 문물은 문화재 관련 행정 부서에서 조직한 1,200여 곳의 박물관에서 전시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 전문기관인 고고학 연구소와 문화재 연구소가 30여 곳, 가동문물의 수집과 판매를 담당하는 100여 곳의 전문적 문물 상점, 그리고 문화재 전문 출판사 등이 있다.

중국 전체 30만 곳의 부동문물 중에서 각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문화재는 2,300여 개의 현에 약 5만 5천여 군데가 있다. 전국 중점급은 현재 750곳으로 국무원에서 혁명유지 및 혁명기념건축물, 석굴사, 고건축 및 역사기념건축물, 石刻 및 기타, 古遺址, 古墓葬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1961년 180곳, 1982년에 62곳, 1988년에 258곳 등을 지정하였다. 성급 문화재는 7천군데나 된다.¹⁶⁾

부동문물의 하나인 文化古都에 대한 관리는 국무원에서 1982년과 1986년에 歷史文化名城名單으로 발표하였다.¹⁷⁾ 또한 문물, 科學館, 民族宮, 植物園, 動物園 및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포한 自然保護區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까지 확대되었다.¹⁸⁾

중국은 1983년 국제박물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1998년까지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공약」에 따라 지정된 유산은 문화유산 15, 자연유산 3, 복합유산 3건 등 21곳이다. 만리장성(1987),

후 각 시대의 도시 유적지, 고대 수공업 유적지 등이 있다. 고분은 墓穴, 장례 도구, 부장품과 묘지를 포함하고 있다. 선사시대 묘는 2만여 기가 발굴되었으며 주로 황하 유역에 70%가 분포되어 있다. 商周시대의 묘는 2만여 기가 발굴되었으며 대부분이 중소형의 묘이고 秦漢 이후는 위치가 불명확한 원나라의 왕릉을 제외하고 수만 기의 묘가 있다.

- 15) 何戊中, 「앞글」(주1)302. 가동문화재는 陶器, 瓷器, 玉石類, 珠寶翠钻(보석류), 유리제품, 범랑제품, 금은제품, 銅鐵器, 錫鉛器, 칠기, 가구, 담요, 자수품, 시계, 鼻煙壺, 竹木牙角器, 符牌徽標, 문체용품, 도장, 베틀, 떡, 중국화, 서양화, 공예화, 범화, 탁본, 화폐, 우표, 도서 및 기타 등으로 나뉜다. 이들 가동 문화재는 약 1300만건으로 전국의 1500여군데의 국가 소유 박물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 16) 彭卿云·劉煒等編, 1989. 『全國重點文物大全-保護單位500處』(北京:中國旅游出版社)629-661. 이들 문화재는 전국 중점급이 93.7%, 성급은 61.3%의 문화재관리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何戊中,1997. 「앞글」(주1)304-306). 한국의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 지정 문화재 현황」(1997.1.1 현재) 표에 따르면 국보 294점, 보물 1244점, 사적 393점, 사적 및 명승 6점, 명승 67점, 천연기념물 384점, 중요 무형문화재 110점, 중요민속자료 232점 등 총2670점으로 나타나있다.(조유전,1998. 「한국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과제」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51,169-179. 참조)
- 17)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 編, 1990. 『文物工作手冊』(北京:燕山出版社), 「國家一批歷史文化名城名單(國務院1982년2월8일)499-515. 1982년 「문물보호법」과 1989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3차례에 걸쳐 국가급 문화고도로 99곳을 지정하였다. 각 성정부에서도 성급 문화고도를 지정하고 있다.
- 18) 「위책」 『第一批國家重點風景名勝區名單』(國務院 1982년 11월 8일)1990. 516-541. ; 中國博物館學會, 1995. 『中國博物館志』(北京 華夏出版社)所收條目,1. 국무원에서 1982년에 제1차 國家重點風景名勝區를 44개구, 제2차로 1988년에 40개구를 지정하였다.

태산(1987), 명청왕조 궁전-자금성(1987), 막고굴(1987), 진시황 병마용갱(1987), 주구점 北京猿人遺址(1987), 黃山(1990), 四川 九寨溝 계곡(1992), 黃龍寺 계곡(1992), 湖南 武陵源(1992), 承德山莊(1994), 라싸 포탈라궁(1994), 曲阜 孔子祠堂 및 廟(1994), 武當山 고대건축물군(1994), 樂山大佛 및 峨眉山(1996), 廬山(1996), 운남 麗江 古城(1997), 江古城 山西 平遙(1997), 蘇州 정원(1997), 북경 이화원(1998), 북경 천단(1998) 등이다.¹⁹⁾

2. 중국 박물관의 유형과 발전

(1) 중국박물관의 유형과 관리

1) 박물관의 유형

박물관의 유형은 박물관의 수량이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내용과 진열방식도 새롭고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통일시켜 분류하기에는 곤란한 점도 많다. 그러나 대개 소장품, 전시품, 교육활동의 성질과 특징에 다르거나 경비의 출처, 소속기관 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²⁰⁾

1930년대나 40년대에는 역사류, 자연과학류, 예술공예류 등 종합적 성격을 띤 보통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였다. 신중국 성립 후 문화부 박물관리국이나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전문성박물관, 기념성박물관, 종합성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소속부서에 따라 문화, 과학, 교육, 군사, 陵園, 民政, 정부 등이 나누어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박물관의 성격이나 진열된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 역사류 박물관, 문화예술박물관, 자연박물관, 科技類박물관, 혁명사(혁명기념)박물관, 특수박물관으로 나누기도 한다.

문물국에서는 社會歷史類 박물관(일반 역사류, 혁명사류, 민족류, 민속류, 기념류, 문화예술류), 自然科學類 박물관(자연성질박물관-일반성·전문성·園圃性(동식물원), 과학기술성질 박물관-과학기술·과학기술사) 그리고 綜合性 박물관으로 구분하였다.²¹⁾ 그리고 주관부서나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歷史類 박물관, 紀念類박물관, 文化藝術類 박물관, 科學技術類 박물관, 綜合類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다.²²⁾

19) 권삼윤, 1997. 『세계문화유산 베스트25』(서울:월간『조선』, 조선일보사)216-232. 1997년 10월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399개가 지정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6개국에는 98점, 유럽 34개국에 193점, 아프리카 지역 14개국에 45점, 아메리카 지역 20개국에 63점 등이다. 부록에는 국가, 명칭(영문, 지정년도, 성격)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20) 王宏鈞, 1990. 『博物館類型』, 『앞책』(주4)43-54; 馬繼賢, 1994. 『博物館分類』, 『앞책』(주5)78-89.

21) 文化部 國家文物局 主編, 1985. 『中國博物館學概論』(北京,文物出版社)42-53.

22) 『全書』 『博物館類型』, 1993. (주13)48-49.

歷史類박물관(일반역사, 혁명사류, 고고류, 민족과 민속류, 기념류)은 역사적 관점에서 소장품을 전시한다. 중국역사를 포함하는 통사박물관과 각 도시의 지방사, 단대사 및 전문역사박물관이 있다. 중국역사박물관, 지방의 역사박물관, 남경박물관, 섬서 역사박물관, 荊州박물관, 洛陽市박물관 등이 있다.

혁명사류는 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중국혁명박물관, 중국혁명군사박물관, 井岡山 혁명박물관 등 인민군중의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의 계승을 목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노력과 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²³⁾

고고류에는 西安 半坡遺址박물관, 定陵박물관, 大地灣遺址박물관, 진시황 병마용박물관이 있다. 민족과 민속류에는 민족문화궁 전람관, 용정 조선족 민속박물관 등이 있다.²⁴⁾

기념류로는 인물과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건립된 것으로 故居나 紀念館으로 불린다. 韶山 毛澤東同志紀念館, 북경 魯迅박물관, 中山故居紀念館,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遵義會議 기념관 등이 있는데 문화계통 박물관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文化藝術박물관(조형예술류-미술·조각·공예·촬영 등, 문화예술류-음악·무도·희극·영화·복식·체육·개인 수장의 잡류 등)은 역사시기의 문화 예술품으로 기원, 발전과 역사과정을 전시하거나 예술형식의 전파매체 등을 전시하며 예술과 미술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²⁵⁾ 이들은 南陽 漢畫館, 廣東민간공예관, 북경 大鐘寺 古鐘박물관, 徐飛鴻기념관, 天津戲劇박물관, 천진예술박물관, 蘇州戲曲박물관, 중국미술관, 중국체육박물관, 炎黃예술관 등이다.

自然歷史박물관(일반자연역사류, 전문자연류, 園囿類-동식물원, 자연보호구·국가공원)은 자연 역사류로 북경, 상해, 천진 등지에 설치된 자연박물관, 중국 지질박물관, 自貢공룡박물관, 旅順蛇類박물관 등이 있다. 동물원은 북경, 성도, 상해, 심천 등 20여곳이 있으며 식물원은 북경, 華南, 昆明, 廬山 등 100여곳이 넘고 자연보호구는 1400여곳이 있다.

科學技術박물관(종합과기류, 전문과기류)은 과학 기술성과를 전시하는 곳으로 전세계에 4,000여곳이 설립되어 있다. 중국 科學技術館, 청소년과학관, 南通방직박물관, 중국우표박물관, 大慶油田開發과학실험진열실, 중국농업박물관, 景德鎮陶瓷역사박물관 등이 있다.²⁶⁾

이외에 綜合박물관은 특정지방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역사, 혁명사나 예술방면의 소장품 혹은 민족사, 자연사, 경제 건설등의 내용을 전시한다. 산동성, 절강성, 안휘성, 감숙성 박물관, 내몽고자치구박물관, 후룡강성박물관 등이 있다.²⁷⁾

중국의 박물관은 역사류 박물관이 대부분이며 비교적 많은 기념류 박물관도 걸출한 인물이

23) 王志俊, 「遺址博物館的陳列與環境」, 308-320.; 楊武·張建華, 「改進革命舊址紀念館陳列工作的幾點意見」, 320-330.(이상 주5 『討論會文集』).

24) 趙華, 「多民族地區博物館發展芻議」, 95-101.; 吳曉玲, 「發揮地方優勢,建設民族地區博物館」, 102-108.(이상 주5 『討論會文集』).

25) 梁太鶴, 1993.(주5 『討論會文集』). 「函待創建傳統工藝博物館」, 140-148.

26) 張泰昌, 1993.(주5 『討論會文集』). 「科技館學研究初探」, 230-240.

27) 王宏鈞 主編, 1990. 「博物館類型的劃分」 『앞책』(주4)45-54.; 馬繼賢, 1994. 「博物館分類」 『앞책』(주5)78-89.

나 중대 사건 기념지의 박물관은 적고 혁명사류를 중심으로한 기념관이 많아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 넓고 많은 민족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민속박물관의 설립이 요구되지만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자연역사류 및 과학류 박물관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중국박물관이 수량이나 질량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적 분포를 유지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²⁸⁾

2) 박물관의 관리

박물관의 관리는 성질과 유형 혹은 소속부서에 따라 구분된다. 박물관은 문화 문물행정 주관의 각종 문화계통박물관, 科委 소속의 각종 자연과학박물관, 敎委관리의 학교박물관 혹은 진열관, 군대계통의 박물관과 기념관, 중앙각부 주관 혹은 하부 기관에서 설립한 전문박물관(煤炭, 郵電, 鐵道, 地鑛 등), 民政宗教박물관, 개인박물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부는 종합류, 역사류, 문화예술, 기념류박물관을 관리한다. 과기류박물관과 자연역사류박물관은 과학분야에서 관리하고, 학교박물관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지질, 농업, 무연탄, 우편, 군사 등의 전문류박물관은 소속 관련부서에서 관리한다.²⁹⁾

행정체제는 박물관의 크기, 소장품 수량, 사회 지위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 성(직할시, 자치구), 시, 현(구)등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국무원은 각성(직할시, 자치구)의 문화국을 통하여 지방의 박물관을 관리한다. 문화부와 국가문물사업국은 각성의 문화청 혹은 문물국을 통하여 문화계통의 사업을 진행하며 박물관 사업의 관리, 정책과 법령, 건설계획, 경비, 편제 등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문물사업국은 중점문물보호단위의 고건축, 기념유지, 기념건축물 등의 수리비용을 보조한다. 그리고 역사문물, 혁명문물, 민족문물, 자연표본 등을 수집한다.³⁰⁾

소장품 분류에 대한 중국박물관의 절대 다수가 소장품의 특징과 수량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宋伯胤, 何直剛, 高和, 祝敬國, 宋良璧 등이 각자의 분류법을 내놓고 있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宋伯胤은 유물에 대해 部類屬科로 나눈 후 10개 항목으로 다시 분류하는 4部4項10진분류법을 사용하였다. 中國歷史博物館에서는 복합적인 다층분류법으로 유물을 먼저 6계열로 분류하고 지구, 재질, 연대, 민족 등에 따라 수자로 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天津藝術博物館은 9종류로 구분하고 上海博物館은 21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분류법을 통일시키기는 것도 중국박물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³¹⁾

28) 梁吉生, (주5『討論會文集』, 『90年代博物館發展芻議』, 60-69.

29) 『全書』『博物館管理』, 1993.(주13), 43-44.

30) 『全書』『中國博物館史』, 1993.(주13), 748-753.; 何戊中, 1997. 『앞글』(주1).

31) 馬繼賢, 1994. 『藏品分類』 『앞책』(주5)136-143.; 王宏鈞 主編, 1990. 『藏品分類』 『앞책』(주4)195-205. 참조.

(2) 중국 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1) 전통 중국의 박물관

商나라때 占卜에 사용되던 甲骨은 周왕실에서 多名器重寶라하여 守藏室에서 관리하였으며 簿錄에 등기하여 宗廟, 府庫 등에 수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문물들은 圖書典籍과 함께 보존되었다. 漢대에는 天祿, 石渠, 蘭臺 등에 보관되었고 宋代에는 秘閣, 龍圖閣, 天章閣 등에 도서 뿐 아니라 古畫, 墨迹, 寶玩, 符瑞 등이 함께 수장되었다.³²⁾

전문적으로 문물을 수장하였던 수나라 문제는 妙楷臺, 寶迹臺를 건립하여 서화 800여권을 서법과 명화로 나누어 수장하였다. 송나라때 장안에 碑林을 설립하여 비석들을 모아 놓았으며 保和殿, 稽古閣, 博古閣, 尙古閣 등을 설립하여 古玉, 인쇄, 서법, 圖畫와 각종 鼎彝禮器 등을 수장하였다.

송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료와 사대부들이 개인적으로 문물을 수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 감상 수준에 머물렀고 종실의 귀족들은 새로이 수장고를 지으면 서까지 수백여종의 문물을 모으기도 하였다. 송나라의 歐陽修는 金石銘刻을 수집하여 『集古

① 宋伯胤은 먼저 部로 고고발굴품(A), 민족학재료(E), 流散문물(S), 외국문물(F)로 4부로 나눈다. 두 번째는 類로 유물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9단계로 나눈다. 즉 石(1), 玉(2), 金屬(3), 泥陶(4), 瓷(5), 竹木匏核(6), 紙(7), 綿麻絲毛(8), 骨蚌貝牙角皮革(9)으로 분류한다. 세 번째는 屬으로 용도와 공예상태로 구분을 한다. 만약에 石類라면 역대 仿制品複製品其他(1.0), 생산공구(1.1), 생활용구(1.2), 碑刻墓誌(1.3), 造像畫像(1.4), 刻石集貼(1.5), 佩飾品(1.6), 건축구조(1.7), 明器(1.8), 제작공구와 생산유존물(1.9)로 나누는 것이다. 네 번째는 科로 유물의 용도 혹은 공예에 의거하여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 만약에 서화류라면 國畫(7.1), 仿制複製品(7.1.0), 卷(7.1.1), 軸(7.1.2), 冊(7.1.3), 扇面(7.1.4), 對聯(7.1.5), 橫幅斗方(7.1.6), 屏條(7.1.7), 片子(7.1.8), 其他(7.1.9)로 분류한다. 등록의 방법은 고고발굴을 통하여 수습된 石斧라면 A1.1.1/총등기번호로 표기한다.

② 中國歷史博物館에서는 1급품은 (Y), 고고발굴품(K), 傳世品(C), 화폐(H), 민족문물(M), 문헌탁본엿 사진(W)으로 나눈다. 고고발굴품일 경우는 北京(K1), 上海(K2), 河北省(K3)을 시작으로 雲南省(K28), 西藏自治區(K29)까지 등 29개 지역으로 나누어 출토지 省을 표기한다. 그리고 傳世品은 재질에 따라 石器(C1), 玉器(C2), 陶器(C3), 瓷器(C4), 銅器(C5), 鐵器(C6), 기타금속기(C7), 牙骨器(C8), 磚瓦(C9), 石刻(C10), 漆木器(C11), 織綉(C12), 印章(13), 書畫(C14), 徽章(C15), 雜類(C16), 輿圖(C17), 集品一括文物(C18) 등 18개로 구분한다. 貨幣類는 재질, 년대, 형상에 따라 貝(H1), 布刀(H2), 圓錢方錢秦錢(H3), 西漢東漢新莽錢(H4), 三國晉南北朝隋錢(H5), 唐五代十國(H6), 北宋南宋錢(H7), 遼西夏金元和 元末起義錢(H8), 明末과 明末起義錢(H9), 清太平天國錢(H10), 銅元銀幣(清, 民國, 外國)(H11), 金幣(中外)(H12), 銀幣(中外)(H13), 紙幣代用券彙票(中外)(H14), 錢范鈔版銅模(H15), 五四以後革命錢幣(H16), 外國銅錢(H17), 雜錢(H18)으로 18개로 나눈다. 民族文物은 彝族(M1), 傣族(M2)에서 苗族(M10)으로 10단계 분류하고 있다. ③ 天津 藝術博物館에서는 도자, 옥 석기, 금속기, 서법, 회화, 명각조각, 문방용구, 공예품, 지방민간공예를 100단위로 구분한다. ④ 上海博物館은 서화, 雕版, 絲綉, 竹木, 도기, 자기, 석기, 銅器, 범랑기, 갑골, 符印, 화폐, 옥기, 칠기, 석각, 혁명문물, 소수민족문물, 상해출토문물, 외국문물, 특종공예미술, 잡류로 나누고 있다.

32) 王宏鈞 主編, 1990. 『앞책』(주4)69.

錄』1천여권을 편찬했고³³⁾ 趙明誠(1081-1129)은 鍾鼎彝器와 석각, 탁본, 서화, 명화, 도서 전적 등을 수집하여 『金石錄』 30권 502편을 편찬하였다.³⁴⁾ 元·明을 지나 淸나라 때에는 錢大昕, 畢沅, 端方, 陳界祺, 楊守敬 등 문물 수집가와 감상가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이들에 의한 고대 문물의 수장과 보호는 박물관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³⁵⁾

아편전쟁(1840) 이후 서방문화와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근대박물관의 설립을 촉진시켰다.³⁶⁾ 중국의 근대적 박물관은 외국인과 중국인이 건립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이 초기에 설립한 박물관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교회 주관으로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세운 자연역사류 박물관이 주류를 이룬다.³⁷⁾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Eudes,P.가 상해에 徐家彙博物院을 설립(1868)하여 주로 양자강 중하류의 동식물 표본을 전시하였으며 이후 震旦博物院으로 개명(1930)하였다.

그리고 영국인이 상해에 亞洲文會博物院(상해자연역사박물관)을 건립하였고(1874) 영국 황실에서는 아주문회 북중국지회를 설립하여 중국과 동남아 지구의 물품을 전시하였다. 주로 조류, 맹수류, 파충류 등의 자연표본과 고문물, 고미술품이었다. 영국 런던교회에서 천진에 華北博物院을 건립(1904)하여 지질 및 광물의 표본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濟南 廣智院을 설립(1904)하여 동식물, 광물, 천연, 농산 및 고물 등 13종류의 실물 표본 1만여점을 전시하여 전람회를 열면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天津의 北疆博物院(프,1914), 타이페이의 대만 總督府 民政部 殖産局 附屬 紀念館(일,1915), 旅順의 關東都督府 滿蒙博物館(일,1916)과 成都의 華西協和大學博物館(미,1919)등이 설립되었다.³⁸⁾

중국인이 설립한 박물관은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서양의 자연과학 기술을 전시하였다. 北京의 京師同文館에 먼저 박물관이 설립되었다(1876). 그리고 상해 格致書院에 '鐵嵌玻璃房' 박물관이 설치(1877)되어 영국의 과학박물관 및 벨기에 등지에서 기증된 각종 과학의기, 총과 포탄, 복식 등이 전시되었다.

청나라에서는 新政을 추진하면서 科擧制가 폐지되고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의 개량 조치가 취해지자 강소, 산둥, 섬서, 호남, 광둥 등의 지방관리나 인사들은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청하였다. 張謇은 通州師範學校에 公共植物園을 건립하였다가 이를 기초로 하여 南通博物院을 설립하였다(1905).³⁹⁾ 남통 박물관은 중국인이 설립한 근대적 의의가 있는 최초의 박물관으로 건축은 물론 유물의 수장, 진열, 전시를 자연, 역사와 미술로 구성하여 개설한

33) 『全書』 「歐陽修『集古錄跋尾卷』」, 1993.(주13)395.

34) 王宏鈞 主編, 1990. 「宋代的文物收藏和研究」 『앞책』(주4)70-72.

35)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주13)748.; 馬繼賢, 1994. 「中國博物館的早期形態」 『앞책』(주5)18-28.

36) 傅振倫, 1993.(주5『討論會文集』).13-23.

37) 王宏鈞 主編, 1990. 「外國在中國開辦的博物館」 『앞책』(주4)97-104.

38)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주13)749.

39) 呂濟民, 1993.(주5『討論會文集』)2.

종합성 박물관이다. 박물관 내에 식물원, 동물원, 공원을 만들었다.⁴⁰⁾ 이외에 각종 진열실로는 學部侍郎 嚴修가 천진 城隍廟에 교학용품 진열실(1905)을 만들었고 農商部에서는 京師樂善園(현 북경동물원)에 농사실험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산동의 泰安에는 일본에서 구입한 교육 모형을 전시한 교육박물관 등도 있었다. 이러한 진열실들은 天津考工倉진열관(1902), 開封 權工진열소(1904), 廣東學務處에서 설립한 도서교육품진열관 그리고 심양, 섬서, 직예, 강서성 등지의 도시에도 박물관 성격을 띤 각종 진열소가 건립되어 1910년에는 40여개의 진열관이 있었다.⁴¹⁾

2) 辛亥革命(1911) 이후의 중국 박물관

신해혁명 후 중국의 박물관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박물관이 국가의 사회교육 체계로 편입되어 비로소 초보적이거나 국가적인 관리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황궁 및 황실에서 보관 중이던 수장품을 사회에 개방하게 되었고 문물과 박물관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수장 기능과 진열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박물관 단체가 성립되어 학술연구 기능도 강화되었으며 70여곳 이상 증가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양한 박물관의 수량이 많지않았거나 분포 지역이 불합리하게 편중되었거나 과학적 수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교육적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⁴²⁾

남경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蔡元培는 民主共和를 종지로 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고 교육부에 社會教育司를 설립하여 각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동식물원 및 문물의 수집 등을 포함한 사회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魯迅(1881-1936)이 집행하였다. 최원배 등은 中華職業教育社를 성립하여 직업학교와 박물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⁴³⁾

1912년 國子監에서 사용되던 器皿등을 진열하여 최초의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14년 내무부에서 「古物陳列章程」17조와 「辦事細則」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설치기구, 인원, 문물진열 및 창고 보관정리 등의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內政部에서는 청의 행궁이었던 봉천(심양)과 熱河(承德)의 문물 20여만점을 북경 고궁의 武英殿, 文華殿으로 옮겨 古物陳列所를 설립하고 황실 수장의 문물을 이관 전시하여 유물을 사회화하였다. 1915년에는 남경의 明故宮에 南京古物保存所를 설립하였다. 1918년에는 國子監 歷史博物館을 고궁 午門 일대로 옮겼고 1924년 馮玉祥이 북경정변을 일으켜 「淸室優待條件」으로 마지막 황제 溥儀를 출궁시킨 후 辦理淸室善後委員會에서 궁정 물품을 관

40) 『全書』 「南通博物苑」, 1993.(주13)389-390.; 王宏鈞 主編, 1990. 「維新運動和中國第一個博物館」, 『앞책』 (주4)78-84.

41) 馬繼賢, 1994. 『앞책』(주5)40.

42) 王宏鈞 主編, 1990. 「中華民國時期的博物館」, 『앞책』(주4)85-97.

43) 王宏鈞 主編, 1990. 『앞책』(주4)89.

리하였다. 1925년에는 「故宮博物院臨時組織大綱」을 공포한 후 1925년 10월 10일에 故宮博物院으로 개관하였다.⁴⁴⁾

1915년 新文化運動으로 民主와 科學의 개념이 확산되고 敎育과 科學 사상이 중시됨에 따라 박물관의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交通대학이 설립한 北경 철도관리학원 박물관(1913), 北경 위생진열소(1915), 농상부 지질조사소 지질진열관(1916), 保定敎育박물관(1916), 江西성립敎育박물관, 천진박물관 籌備處(1918), 山西 敎育도서박물관(1919), 敎育부 敎育박물관(1920), 嶺南대학박물관(1923), 江西성립과학관, 京兆通俗敎育관(1925), 湖南지질광산 진열관, 兩廣지질조사소 지질광산진열관(1927) 등이 성립되었다.

중공국민당은 敎育행정제도를 개혁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관상대 등을 대학원 조직법 규정에 포함하였다(1927). 그리고 1928년 6월 전국의 박물관을 정리 조사하면서 박물관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에 수요되는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연말에 대학원이 敎育部로 개칭되자 박물관 사업도 무산되고 社會敎育司로 다시 이관되었다.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10년간은 각지역에 省市級博物館이 건립되었다. 河南省 박물관(1929, 民族博物院으로 1930년 개칭), 蘭州시립박물관(1928), 南京시립역사박물관(1928), 廣州 박물관, 四川 峽區박물관, 절강성 西湖박물관(1929), 天津미술관(1930), 廣西省박물관(1934) 등이 건립되었고 시립 상해박물관(1937)이 정식 개관되었다. 이외에 北평 천연박물관(1929), 국립 北평연구원 중남해 예술진열소, 靜生생물조사소 생물통속진열관(1931), 靑島수족관(1932), 北경 國劇진열관, 농상부 지질조사소, 남경 지질광산진열관, 남경 국민당사진열관(1935), 위생체육박물관, 廈門인류박물관(1935)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박물관은 1936년에 박물관이 77개소, 미술관 56개소, 고물보존소가 98개소로 모두 231개소로 증가 하였다. 이는 1928년의 박물관 10곳, 미술관 4곳, 고물보존소 3곳 총 17곳에 비하면 13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연, 인문, 공예로 분류하여 종합성적인 國立中央博物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1936년에 이사회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수장품의 수집공작도 중시되어 수장품의 수량이 격증되었으며 순환전시도 하였다.

1937년부터 1949년까지의 항일과 국공내전의 전쟁시기는 박물관의 파괴와 손상이 심각하여 1938년에 38개소에서 1945년에는 12곳으로 감소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항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1933년에 고궁박물관, 고물진열소, 이화원진열관 등의 문물을 남경과 사천으로 이동시키고 남경 지질광산진열관도 중경으로 옮겼으나 대부분의 박물관은 옮기지 못하였다. 1939년부터는 문물을 박물관, 미술관, 문물보존소, 과학관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일본 치하에서의 박물관은 일본헌병대의 주둔지로 변하거나 파괴되었으며 旅順에 滿蒙박물관(1916, 關東都督府博物館으로 1918 개칭), 滿蒙物資參考館(1924, 滿蒙資源館으로 1926 개칭), 中場鐵路博物館(1926) 등을 건설하고 靑島 산동산업관(1938), 秦原박물관, 武漢성립고물진열소

44) 『全書』 「故宮博物院」, 1993.(주13)192-193.

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滿洲國에서는 熱河보물관(1935, 승덕), 국립박물관(1935, 심양), 국립중앙박물관(1939, 장춘), 민속박물관(1940, 장춘), 南嶺동식물원(1940, 장춘) 등 지역형태의 박물관이 양산되었다.

국민당은 甘肅省 과학교육관(1939), 四川省 박물관(1941), 四川지질조사소 진열관(1942) 등을 설립하였다. 공산당은 1932년 「中國工農紅軍優待條例」를 발표하여 혁명열사의 사적과 유물의 수집을 시작하였다. 1933년 교육부에서 혁명박물관의 건립이 결정되자 「中央革命博物館收集陳列品啓事」를 발표하여 사회기관단체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혁명문건(표어, 결의문, 인쇄물 등)과 혁명물품(무기와 전리품) 그리고 사진 및 깃발, 인장, 휘장 등을 수집하여 1934년에 革命博物館을 설치하였다. 1940년 징기스칸(1162-1227)紀念堂과 蒙古文化陳列館을 延安 楊家灣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1941년부터는 陝甘寧邊區 정부의 승인하에 연안을 중심으로 주변의 해방구에 진열관, 진열실, 박물관을 건립하여 민중교육관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전람회와 사회교육을 확대시켰다.⁴⁵⁾

항일전쟁의 종결로 1945년 8월 교육부가 각종 사회교육기구에 대해 원상복귀하도록 결정하였지만 국공내전의 격화로 대다수의 박물관들은 폐관되었고 고궁박물관, 하남성박물관, 남경에 남아있던 문물 및 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은 1948년 대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⁴⁶⁾

3) 신중국 성립(1949) 후의 중국박물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박물관은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하나의 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부에 속하던 박물관은 文化部 文物事業管理局로 독립되어 문물과 구중국에 남아 있던 25개소 박물관(외국인 설립 9개소 포함, 문화계통은 21개소)을 관리하고 박물관의 개혁을 담당하였다. 행정기구를 진열, 보관, 군중공작부로 나누고 고건축보호부를 신설하여 궁정건축과 궁정사적 및 고대 예술의 체계를 갖추고 고건축문물의 보호관리와 사용 규칙을 만들었다.⁴⁷⁾

그리고 일, 소, 프, 영 등 외국에서 설립하였던 산동산업관, 청도수족관, 여순 동방역사문화관을 회수(1949)하였고 하얼빈공업대학 과학연구소를 넘겨 받아 松江省 박물관으로 개칭(1950)하였다. 1951년에는 北疆博物院, 천진시 인민과학관(천진자연박물관으로 개명)을 접수하고 1952년에는 大連資源館(東北資源館으로 개명), 亞洲文會博物館, 濟南 廣智院, 震旦博物院 등을 회수하였다. 이들 회수과정에서 문화부는 「地方文物管理委員會暫行組織通則」과 「地方博物館에 대한 방침, 임무, 성질 및 발전방향 意見」을 발표하여(1951) '박물관 사업의 임무는 혁명적 애국주의 교육의 진행과 인민 대중에게 정확한 歷史와 自然을 인식시키고 조

45) 馬繼賢, 1994. 「中央蘇區的博物館活動」, 『앞책』(주5)45-46.

46)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주13)749-751.

47) 呂濟民, 1993.(주5『討論會文集』)3.

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여 정치적 각오와 생산적 열정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리고 박물관 사업도 원상 복귀 위주로 전환해 나가며 각 지구에는 별도의 박물관을 신축한다. 또한 진열 내용도 사회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역사, 과학, 예술가치, 식민지성 등을 청산하고 봉건, 매관 및 제국주의 사상의 진열과 전람도 타도하고 사상성, 과학성, 예술성을 도출하는 유물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진열형태로 바꾸었다. 이리하여 1952년에는 구박물관이 정돈되어 32개소의 사회주의 박물관으로 되었다. 그리고 政務院에서 「禁止珍貴文物圖書出口暫行辦法」을 공포하여 혁명문헌과 실물, 고생물, 史前遺物, 건축물, 회화, 조각, 각종 銘刻, 고금 진귀도서 및 탁본, 고대화폐, 지도 및 각종 기구 등 11종류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법과 「古跡珍貴文物圖書 및 稀貴生物保護法」, 「古文化遺址 및 古墓葬의 調查發掘 暫行法」을 만들었다.

1950년대는 省級 地志博物館과 紀念性博物館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⁴⁸⁾ 지지 박물관은 소련의 박물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종합성 박물관이라고도 한다. 문화부에서는 「地方博物館의 방침, 임무, 성질 및 발전방향에 대한 意見」에서 해당 지역의 自然資源(지리, 민족, 생물, 자원 등), 歷史發展(혁명사 등), 民主建設(정치, 경제, 문화 등) 등을 진열내용으로 배합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1954년 문화부는 지지박물관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박물관의 지원속에 山東省博物館을 완성(1956)하였다. 그리고 제남에서 '전국 지지박물관 경험교류회'를 개최하여 산둥지지박물관 형식을 전국에 31개소 건립하였다.

기념성 박물관은 혁명박물관 건설주비처 설립을 결정하고 대도시 행정구역의 도시는 조건이 구비되면 지방 혁명박물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박물관 내에 혁명문물 진열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延安혁명기념관, 廣州 농민운동강습소기념관(1953), 遵義會議기념관, 瑞金革命기념관, 西柏坡혁명기념관(1955), 南昌 八一起義기념관, 南京 태평천국역사박물관 등이 건립되었다. 또한 인물기념박물관도 건립되었는데 상해 魯迅기념관(1950), 杜甫草堂 기념관(1953), 徐飛鴻기념관(1954), 李大釗 故居기념관(1957) 등이 건립되었다. 이로 인해 1957년에는 기념성박물관이 23곳에 달하였다. 1952-1955년 중국의 박물관 분류통계표에는 전문성, 지방성, 기념성으로 나누어 도시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놓았다.⁴⁹⁾

박물관이 이처럼 증가하자 1956년과 1957년에는 '전국박물관 공작회의'와 '전국기념성박물관 공작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공작회의에서는 박물관의 사회지위와 작용에 대해 천명하고 박물관의 기본성질을 '과학연구기관, 문화교육기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보존 및 자연표본의 수장소'로 규정하였다. 1957년 문화부문의 박물관은 72개소에 달하였으며 개별지구 이외의 성시자치구에 박물관이 건설되었다.

1958년 모택동은 安徽省博物館을 시찰하면서 '1개성의 주요한 도시에는 이러한 박물관이

48)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 (주13)751-752.

49) 王宏鈞 主編, 1990. 「1952-1955年全國博物館分類統計表」, 『앞책』(주4)118-119.

필요하고 인민 자신의 역사와 창조적 역량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자 전국에 박물관 건립 열기가 일어났다. 북경의 中國歷史博物館과 中國革命博物館이 준공되었고(1959.8)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1959.7), 北京自然博物館 등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박물관이 성립되었다.⁵⁰⁾

50년대 후기는 지구, 현, 시에 중소형의 박물관과 구체적인 특색을 갖춘 專門博物館도 건립되었다. 西安 半坡遺址박물관, 泉州 해외교통사박물관, 南陽 漢畫館, 自貢 鹽業역사박물관 등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급격한 조성과 과도한 의지는 현마다 박물관과 전람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물관의 수장이나 연구 공작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하였다.⁵¹⁾

이러한 과정은 1958년부터 1961년 전국적으로 수정되고 조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수준이 극히 낮은 박물관은 폐관하거나 합병하여 전국문화 계통의 박물관이 1959년에 48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박물관과 문물공작에 관한 몇가지 意見」(1962, 약칭 「十一條」)과 「博物館 所藏品保管暫行法」을 공포하여 연구, 분석, 자료 조직 등 박물관 내부의 조정과 기구정리, 인원정리, 소장품 정리 등을 행하고 분류, 감정, 진열, 문물보호공작과 간부 훈련 등이 정리되었다.⁵²⁾

그러나 1966년 文化大革命으로 인해 대부분의 박물관은 문을 닫게 되어 1969년에는 171 곳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 국무원에서 박물관을 다시 회복시켜 대형 전람회와 故宮博物院을 다시 개방(1971)하여 해외로 유물을 출품하였다.⁵³⁾

3. 개혁개방(1978) 이후의 중국 박물관

문화대혁명이 결속된 후 국가문물국은 大慶에서 全國文博圖工作學座談會(1977)를 열어 박물관의 회복 정돈과 각종 규장제도를 만들었다. 10월에는 蘇州에서 박물관 문물보관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박물관장품보관 試行辦法」과 「박물관 1급장품 鑑選標準」(試行)을 제정하였다. 국가문물국에서는 合肥에서 '성직할시자치구 박물관공작 좌담회'를 개최(1979)하여 사회주의 현대화시기의 박물관 공작의 특징과 임무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기본적 진열과 과학 연구 및 수집, 보관, 군중교육 방안을 강화시켰으며 「省市自治區博物館工作條例」를 제정(1979)하여 박물관의 방침, 임무 및 소장품, 진열, 과학연구, 군중교육, 간부그룹 건설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50) 『全書』 「中國歷史博物館」790, 「中國革命博物館」756, 「北京自然博物館」26.1993.(주13).

51) 王宏鈞 主編, 1990. 「建國後十七年(1949-1966)博物館事業的發展」 『앞책』(주4)113-123.

52) 馬繼賢, 1994. 「博物館的整頓與發展(1949-1965)」 『앞책』(주5)49-57.

53) 王宏鈞 主編, 1990. 「十年動亂時期博物館事業發展的嚴重挫折」 『앞책』(주4)126-128.

또한 박물관의 소장품은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로 박물관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 박물관의 성격과 임무에 맞추어 소재지 범위 내의 고고학 발굴에 의한 유물, 기증품, 문물의 수집, 표본의 채집 및 박물관 상호간의 물품 교류 등으로 모여진 물품으로 한정하였다.⁵⁴⁾ 그리고 유물 수집 작업시에는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 연구해야 하며 기록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고대의 역사 문물은 물론 근현대의 문물도 중시하며 특히 혁명문물(사회주의시기 문물 포함)과 민속문물도 함께 수집한다고 규정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박물관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⁵⁵⁾ 먼저 수적 증가로는 1987년에 1천여곳이 넘었다. 유형적으로는 사회 역사류 박물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민속, 민족, 科技, 자연역사, 園圃, 遺址 및 노천성 박물관도 형성되면서 지방적 특색과 민족 풍격이 강조되었다. 臨潼의 진시황 병마용박물관, 북경 大鍾寺古鐘박물관, 중국 불교도서박물관, 南通 방직박물관, 黃石 銅綠山 古銅礦遺址박물관, 천진 戲劇박물관, 연변 龍井 조선민족민속박물관, 自貢 공룡박물관, 涼山彝族 노예사회박물관 등이 건설되었다. 또한 강서, 강소, 광둥, 섬서 등지의 각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縣級이나 중소도시에도 급속히 확산되었다.⁵⁶⁾ 그리고 煤炭, 방직, 郵電, 지질 등의 전문적인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상해 등지에서는 개인 소장품의 전람회가 박물관에 등장하였다.⁵⁷⁾

중국의 박물관은 1929년에는 10개에서 1936년에는 72개로 증가하였으나 신중국 성립(1949)때에는 21개(문화계통)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52년에는 40개, 1957년에는 72개였으나 문화대혁명기의 공백기간을 거쳐 1976년에는 263개로 증가하였다.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1980년에는 365개 그리고 1985년에는 711개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013개, 1992년에는 1106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 이래 10여년 동안은 박물관의 수량이나 규모, 유형과 활동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는데 문화 계통의 박물관이 731개로 증가하였고 소장품도 191만여점으로 증가하였다. 각종 해외전시회도 『中國文物報』(1987.10.23일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11회 3중전회 이래 문물보호, 연구와 선전 공작에 커다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고고발굴이 4000여차례 중 400여곳 이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문물의 장품이 1000만건에 달하게 되었다. 문물출판사에서 각종 문물 서간 850여종 800여만권을 출간하였고 대외문물전람회도 68차례 전시하였다.⁵⁸⁾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박물관학회에서는 1995년 소실되어 개방할 수 없는 박물관을 제외하고 약 1441곳을 선정하여 『中國博物館志』를 편찬하였다.⁵⁹⁾

54) 李耀申, 1993. (주5『討論會文集』) 「對我國博物館藏品來源的思考」 337-345.

55)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 (주13)752-753.; 王樹卿, 1993. 「故宮博物院改革開放的認識基礎」 24-34.; 孫克成, 1993. 「博物館改革的現狀, 導向與建設」 45-53. (이상 주5『討論會文集』).

56) 胡顯范, 1993. 「試論縣級博物館的現狀與建設」 117-122.; 呂名軍, 1993. 「中國博物館發展重點芻議」 80-86. (이상 주5『討論會文集』).

57) 王宏鈞 主編, 1990. 「博物館事業的全面恢復和發展」 『앞책』 (주4)128-134.

58) 李曉東, 1993. 『中國文物學概論』 (河北人民出版社) 402.

두 번째로 思想의 해방이나 實事求是를 진열의 기본적 개념으로 삼아 확대하고 진열 내용과 표현형식을 다르게 하였다.⁶⁰⁾ 인원 구성도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고 진열내용의 연구, 예술설계, 제작, 시공, 선전교육, 진열 공작 그룹을 포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애국주의를 선전하고 역사적 유물주의를 변증함으로서 혁명 전통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및 지식을 보급하여 학교 수업과 조화되도록 하였다.⁶¹⁾

세 번째는 소장품 보관사업으로 전국 주요 자연과학류 박물관의 표본이 약 100만여건에 이르렀다. 문화계통 문물은 678만여건(1986) 중에서 1급품이 6만여건이다. 수집 문물도 79년 이후에 95만여건이나 증가하였다. 소장품의 관리와 안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설비를 강화하고 소장품의 전산화 검색체계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박물관1급藏品總目錄』을 준비중에 있다.⁶²⁾

이와 함께 소장품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의 제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물보호법」(1982)과 문화부, 공안부가 공포한 「박물관 안전보위공작규정」⁶³⁾, 문화부의 「박물관藏品管理辦法」⁶⁴⁾, 「文物藏品定級標準」⁶⁵⁾과古墓葬과古遺址에 대해 7개항목의 「盜掘과 밀수 퇴치에 관한 문화활동通告」(1987) 등을 공포하여 문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문물보호법」의 수정과 「박물관법」에 대한 사전 연구 작업도 진행을 하며 「역사문화名城보호관리조례」, 「박물관관리조례」, 「문물拍賣管理辦法」, 「문물공작자행위준칙」 등도 제정할 예정이라 한다.⁶⁶⁾

59) 中國博物館學會, 1995. 『앞책』(주19)1-2; 何戊中, 1997. 「앞글」(주1)309. 1995년 말 현재 중국의 문화재 행정관리 부서가 관장하는 각종 박물관은 1,194곳이며 2만8천여명의 근무자가 있고 소장문화재는 약 6만3천9백여건이며 각종 전시회가 2,828건으로 연 관람객이 1억3천8백2십8만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60) 趙春貴, 1993. 「論研究述評」275-287.; 趙小平, 1993. 「試論博物館陳列藝術的特點」288-295.(이상 주5『討論會文集』)

61) 楊武·張建華, 1993. 「앞글」(주24)320-329.

62) 祝敬國, 1993. 「博物館標準化論析」8-256.; 王英, 1993. 「論博物館科學管理」374-391.(이상 주5『討論會文集』).

63) 1985년 1월25일 문물字(85) 제59호 통지에는 제1장 총칙, 제2장 領導職責, 제3장 保衛組織, 제4장 重點要害部位, 제5장 防盜, 제6장 소방, 제7장 기술예방, 제8장 獎懲, 제9장 부칙으로 총28조로 구성되어 있다.

64)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 編, 1990. 『文物工作手冊』(北京:燕山出版社)412-420. 1986년 6월 19일 문물字(86) 제730호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장품의 접수, 감정, 登帳, 編目과 建檔이고 제3장은 장품 庫房管理, 제4장은 장품의 提用, 注鎖와 통계 제5장은 장품의 保養, 修復, 複制 제6장은 獎懲 제7장은 부칙으로 모두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65) 『위책』326-331. 문화부 1987년 2월 3일 제정, 1급문물은 특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표성 문물, 2급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물, 3급은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문물로 나누어 1급은 13개항, 2급은 10개항, 3급은 8개항으로 나누어 문물의 등급을 정하였다. 그리고 부칙으로 1급문물정급표준에 대한 예를 22개항목으로 나누어 참고용으로 하였다.

66) 何戊中, 1997. 「앞글」(주1)310. 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9년에 「文物出境鑑定管理辦法」을 반포하였다. 문화재 해외 반출의 한계와 기준 및 문화재 반출의 감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출 금지 대상의 문화재는 그 종류와 상황에 따라 1795년(건륭60년), 1911년, 1949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고 국가가 규정한 3급품 이상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949

네 번째는 인재의 배양과 학술연구가 촉진되었다. 1983년 문물국이 '문박 간부훈련공작 조사좌담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전문인원과 관리간부의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揚州와 泰安 등지에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보관, 진열, 관리 등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이와 함께 문물국과 성,시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문물, 박물관 전수과가 만들어졌고 국가에서는 성인교육고시를 실시하여 박물관 재직 인원에 대하여 대학에서 2년간 학습하게 하였다.⁶⁷⁾ 이러한 교육 훈련으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배출된 박물관 전문인력이 15,000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가 양성됨에 따라 대학에 박물관 전공교육이 증설되었다.⁶⁸⁾

교육부가 1980년 南開大學에 박물관학 전공이 설치된 이후 각 대학등에 박물관학과 문물전공이 설치되었고 復旦大學의 문박학원에 역사, 문박, 문물보호 3개과가 설치되어 박물관학, 문물표본의 과학적 보호기술 및 박물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었다.⁶⁹⁾

또한 中國自然科學博物館協會(1980), 中國博物館學會(1982) 등은 박물관학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조직하여 박물관의 업무와 학술수준을 제고시켰으며 국제간의 박물관학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국외박물관과의 연계를 증진시켰다. 학회 성립 후 진열예술 전문위원회, 사회교육 전문위원회, 보관 전문위원회, 지질박물관 전문위원회 등 專門委員會와 출간잡지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등이 설치되었다. 이외에 지방의 도시에도 지방성 박물관 학회가 있으며 각기 박물관 업무와 훈련활동을 하고 있다.⁷⁰⁾

다섯째는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각국 박물관의 교류활동이 증진되고 강화되었다. 물론 높지않은 문화생활과 박물관 형태나 구조가 불합리한 점도 있으며 유형도 비교적 간단하다. 또한 박물관의 현대화나 사회화 정도도 높지 않고 문물의 소장품 관리나 보호에도 문제가 많다.⁷¹⁾ 그러나 중국은 지역이 넓고 경제문화적인 발전이 서로 다른 형태에서 출발하였기

년 이전에 제작 혹은 생산한 역사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물과 도서 2)1949년 이후 제작된 정치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헌, 예술 창작품과 원고 및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물과 도서 3)어느 정도의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비교적 희귀한 외국 문물 도서 등은 국가 문물국이나 국무원의 특별한 허가없이 절대로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3등급 이하의 문물과 도서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 및 문물의 수량의 변동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67) 郭寶發, 1993. (주5『討論會文集』). 「對當前我國博物館工作的幾點再認識」, 123-132.

68) 彭捷, (주5『討論會文集』). 「論文物教育價值的生成和現實過程」, 241-247.; 오일환, 1998. 「中國大學의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대하여-대학의 고고 박물관학 教科課程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서울:한국박물관학회)1, 195-218.

69) 王學敏, 1993. 「試論博物館教育學」, 223-229.; 趙春鳴, 1993. 「略論博物館的科學管理」, 393-400.; 趙芳志, 1993. 「用系統工程的方法宏觀管理全區文博事業」, 410-423.(이상 주5『討論會文集』).

70) 李厚基, 1993.(주5『討論會文集』). 「90年代中國大中小型博物館科學管理的新思路」, 424-436. 국내에서는 최중호, 1998. 「박물관 전문직 양성과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古文化』(서울:한국대학박물관협회)51, 157-160.에서도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 박물관 연구의 개념과 영역 및 상관성에 대하여 많은 참고 문헌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하계훈, 1996. 「박물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 『博物館學研究』(대전:대전 보건의전문대학 박물관학 연구소)창간호; 박성용, 1994. 「민속박물관 연구원의 역할과 전문교육」 『민속박물관의 세계』(온양:온양민속박물관); 백승길, 1992. 「전문화예직원의 자격과 양성 방안」, 『박물관 및미술관 진흥법 시행 방안 토론회』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때문에 실효성을 강구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면 다양한 중국 특색의 박물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확충하여 대중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⁷²⁾

맺 음 말

중국에서 博物의 사전적 의미는 박식하고 많이 안다는 뜻으로 현대에 사용되는 박물관의 의미와는 매우 거리감이 있다. 19세기 중엽 무렵 서양의 박물관을 둘러 본 중국의 지식인들은 박물관을 集寶樓, 集奇館, 集骨樓, 行館, 公所, 畫閣, 軍機樓 등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1867년 王韜의 『漫遊隨錄』에서 Museum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의 뜻인 ‘博物院’이라 번역 소개한 후부터 점차 현재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68년 徐家輝博物院을 건립한 이래 亞洲文會博物館(1874)등 외국인 선교사들이 연해도시에 교회를 중심으로 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 張謇은 북경에 中國帝室博覽館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불허되자 1905년 중국 최초의 사립 박물관인 南通博物院을 설립하였다. 이 후 1911년 辛亥革命이 발생하여 교육부장 蔡元培가 社會教育司의 魯迅과 함께 박물관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中國歷史博物館을 건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軍閥政權의 성립으로 실패하였다. 군벌의 혼란 속에서 1928년 蔣介石은 중국을 통일하며 기존에 남아 있던 10개 박물관을 1936년에는 77개소로 발전시켰으나 이후 국공내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후 문물과 박물관 사업이 매우 중시되어 珍貴 문물과 文化遺址를 보호하는 『徵集革命文物令』을 반포하였고 지방박물관 건설방침, 임무, 성질, 발전방향 등도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건국전 남아있던 문화계통의 21개 박물관에서 1952년에는 40개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박물관은 대부분 소련의 영향을 받아 건설된 사회주의 유형의 박물관들로 전국의 문물과 박물관은 사회 공유화되었으며 정부의 지도하에 사업을 전개하였다. 1953년 부터는 지방의 자연, 역사, 사회주의 건설의 형태가 더욱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소련의 地志博物館 형태로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1957년에는 전국 박물관이 72개소로 증가하여 구중국에서 소수 도시에 집중되어있던 박물관이 青海省과 西藏지역을 제외하고는

71) 何戊中, 1997. 「앞글」(주1)308-316. 박물관 건립, 문화재의 해외 반출관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외 교류와 합작, 문화재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중국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문제점과 전망에서 중국이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향 후 10년간의 문화재 보호 사업을 위한 1차 적인 계획으로 문화재 관련 입법 방면, 문화재 보호와 보수, 고고학 방면, 박물관 방면,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방면, 대외 교류와 협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72) 『全書』 「中國博物館史」, 1993.(주13) 752-753; 馬繼賢, 1994. 「博物館事業發展的新階段(1976.10-)」, 『앞책』 59-64; 蘇東海, 1993. 「論博物館及博物館學之中國特色」, 182-189; 何洪源, 「博物館學研究方法的若干哲學思考」, 190-198; 尙民杰, 「建設有中國特色的博物館初探」, 167-181. (이상 주5 『討論會文集』).

대체적으로 각성마다 설립되었다.

1950년대 중국 박물관의 기능은 정치와 생산을 위한 형태였다. 이는 박물관을 계급과 정치관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전람회, 혁명운동사전람회, 사회발전사전람회 등 각종 정치운동의 전람회나 사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1956년 전국 지식인 문제 회의에서 周恩來가 '과학을 향해 進軍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박물관에서도 과학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국박물관 공작회의가 개최되어 '3性2務論'이 탄생되었다.

이는 박물관이 '과학연구기관, 문화교육기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유산 혹은 자연표본의 중요한 수장고'라는 세가지 중요한 기본 성질과 '과학연구를 위한 복무와 광대한 인민을 위한 복무를 기본 임무'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의 기본성질과 임무에 대한 이론은 50년대는 물론 계급투쟁이 격화되자 정치적 기능도 강화되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1967년 문화대혁명의 시작으로 문물, 박물관 사업이 파괴되었다는 비판 속에서 새로운 「博物館藏品管理法」이 제정(1977)되었고 개혁 개방의 시작으로 1979년에는 「省市自治區博物館工作條例」(초안)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전국혁명기념관 조정공작회의를 개최하여 문혁기간에 대폭 증가한 개인기념관을 정비하고 「文革紀念館條例」를 제정하였다.

이 후 박물관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헌법이나 당의 12대문건,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의 5년 계획 등 중요한 문건에 중국박물관에 대한 사업 발전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박물관은 1977년 300여개의 박물관이 1987년에는 827개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013개소, 1995년은 1440개소로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의 박물관과 박물관학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성과 세계성의 적절한 조화와 문화적 충들을 잘 극복하여 개성있고 현대적인 박물관을 건설하고 중국내 뿐 아니라 亞太地域의 박물관과의 비교연구와 공동발전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中國大百科全書編輯委員會, 1993. 『中國大百科全書-文物, 博物館』(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文化部 國家文物局 主編, 1985. 『中國博物館學概論』(北京, 文物出版社).
-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 編, 1990. 『文物工作手冊』(北京:燕山出版社).
- 中國博物館學會編, 1993. 『中國博物館學會成立十周年紀念暨學術討論會文集』(北京:紫禁城出版社)
- 彭卿云·劉煒等編, 1989. 『全國重點文物大全-保護單位500處』(北京:中國旅游出版社).
- 馬繼賢, 1994. 『博物館學通論』(四川大學出版社).
- 王宏鈞 主編, 1990. 『中國博物館學基礎』(上海古籍出版社).
- 李曉東, 1993. 『中國文物學概論』(河北人民出版社).
-
- 오일환, 1998. 「중국의 박물관과 박물관학-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원회 학술대회 발표요지』(안동대학교 박물관).
- 오일환, 1998. 「중국대학의 박물관 전문인력양성과정에 대하여-대학의 고고 박물관학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서울:한국박물관학회)1
- 오일환, 1998. 「중국의 박물관학-연구와 그 성과」 『박물관학 연구』(대전:대전 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3.
- 조유전, 1998. 「한국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과제」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제51집.
- 최무장, 1998. 「중국의 문화재 관리」 『고문화』(서울:한국대학박물관협회)제51집.
- 何戊中, 장범성 譯1997. 「중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 『아시아문화』(춘천: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제13호.
- 권삼윤, 1997. 『세계문화유산 베스트25』(서울:월간 『조선』, 조선일보사)
-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博物館學研究』(대전보건의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창간호.
- 문화체육부, 1994. 『국제박물관협회의회 규정집』(서울:문화체육부).